



인도의 무형문화유산 목록 및 정보시스템 구축*

수다 고팔라크리슈난

인도 연행예술유산진흥회 회장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는 빠른 속도로 변모하고 있다. 재래시장은 쇼핑 물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다. 인도의 전통옷 사리*sari*는 리바이스 청바지로, 아침에 삼바*sambar*로 갓 만든 아로마는 켈로그 콘플레이크로 대체되고 있다. 지구 상에 7천여 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하지만, 2주에 1개꼴로 상당수의 언어가 급속도로 소멸하고 있다.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이들 언어와 표현, 전통의 특성조차도 그러한 변화를 겪고 있다. 배경, 형식, 가치 면에서 그것들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은 듯하다. 전시물로서 이것들을 박물관에 보존해도, 가게에서 상품으로 이것들을 판매해도, 또는 인위적인 환경에서 이들을 전시(공공 의례 기능을 위한 전통춤)해도 이들 본래의 모습을 지속시키지 못한다. 그들의 실체는 이미 그것을 벗어나 기억처럼 사라져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보편적이다. 유산에 대해 언급할 때 문득 떠오르는 이미지는 고대 기념비, 사원, 출토지역 또는 유사한 옛 건축물과 같은 유형적 구조물이다. 옛 민요, 고대 관습, 약초에

* 필자는 문화지도 제작 관련 프로젝트 수립에 있어 유네스코인도사무소와 모에 치바 씨(Ms. Moe Chiba)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아울러 사하페디아 프로젝트(Sahapedia project)에 참여해준 것에 대해 기탄찰리 수렌드란 씨(Ms. Gitanjali Surendran)와 '사하 : 연행예술유산진흥회(SAHA: Stirring Action on Heritages and the Arts)'의 동료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대한 조상들의 지식 또는 옛 조선(造船) 기술은 대개 ‘유산’이라고 일컬어지지 않는다.

최근 몇 년 사이 세계적으로 우리의 생활양식 또는 ‘무형’ 유산이 붕괴와 급변, 점진적인 소멸의 위협에 처해있는 데 대한 문제가 증대되고 있다. 세계화의 압력, 보호를 위한 자원의 부족, 탈맥락화된 표현, 무분별한 관광의 여파, 청소년을 위한 관계의 손실이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사회적 과정들의 보호는 단순히 그들을 기록하거나 전시하는 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의 지속, 몇몇 사례에서의 공동체의 권리에 대한 인식 및 법적 보호, 그들의 재창조 및 부흥, 그리고 다음 세대로의 전수까지 아우른다.

모든 것을 동질화하는 세계화의 힘으로 인해 전 세계 무형유산이 사라질 위협이 커지고 있다. 무형유산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 부응해, 유네스코는 2003년 무형문화유산협약을 이끌어냈다. 무형유산협약은 무형문화유산(ICH)의 보호를 위한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체제를 기반이 되고 있다.

무형유산보호의 범위는 특히 인도와 같이 매우 다양하고 다문화적인 유산을 보유한 국가의 경우 무척 광범위하다. 전 세계 모든 지역, 모든 공동체가 제각기 다른 전통과 요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유산의 가치는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 내에서 새로운 잠재적 활용을 통해 인식되어야 한다. 인도의 문화유산은 수세기에 걸쳐 동화와 전승의 과정을 거쳐 다채롭고 풍요로운 문화적 흐름들이 버무려진 결과이다. 인도 문화의 다원적 특징으로 미루어볼 때 무형문화유산은 다양한 문화적 전통 및 정체성에 대한 존중을 고양하고, 관용과 창의성을 고무할 수 있도록 촉진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인도의 무형문화유산목록

인도는 고유의 특성을 지닌 무형유산을 놀랄 만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저장고이다. 이는 오늘날 특별한 다원적 특성이 부여된 동화 과정을 통해 다양하고 풍요로운 문화적 흐름이 혼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형 유산은 신화와 의식(儀式), 예술 활동, 지식 체계, 과학 기술, 생활양식의 언어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다. 인도는 광범위한 전통 지식 시스템, 민속, 연행예술, 축제, 예술 활동을 보유하고 있다. 800여개의 방언과 20개 이상의 공식 언어, 여러 신앙 체제, 관

습, 다양한 양식의 예술, 건축, 문학, 음악과 춤, 도시 및 지방에서부터 부족까지 아우르는 몇몇 생활양식들과 더불어, 인도만큼 다양하고 풍부한 무형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

인도 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과 함께, 기록 및 보호의 중요한 단계로서 문화적 자원의 목록 개발이 있다. 유산이 종종 유물이나 건축 지역의 관점에서만 정의된다는 점, 그리고 기록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많은 표현들과 더불어 풍족한 자원이 흩어지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문화적 자원의 지도 제작 및 보호 모두 더욱 중요하다. 무형유산이 세계화의 출현 속에서 사회적 결속의 원천으로서 계속적으로 활용되고, 동시대의 맥락 안에서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통공예, 음악, 지역 문화 경관을 조성하는 축제와 더불어 무형 유산에 새로운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목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용하다고 보았다.

- 유산 보호의 도구
- 유산 구성 요소의 가치 및 존중 고양
- 정보 제공, 기록 지원, 유산에 대한 접근 강화
- 유산의 관점에서 지식 전승 및 확산
- 지식 및 유산 관련 영역 기관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지식 활용 및 연구 지원

위와 같은 관점을 토대로 유네스코 뉴델리사무소는 인도 정부가 대규모의 지도 제작 및 기록 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얻어 목록 모델을 개발했다. 개발사업 자금은 한국의 아·태무형유산센터에서 제공해주었다.

본 개발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유·무형 유산 및 문화 기관 영역 내 문화적 자원의 목록 제작을 위한 방법론 및 형식·템플릿 개발
2. 각 주(州)·지역·판차야트(panchayat)(5명이 참가하는 인도의 선거 선출제 마을의회 - 역자 주)에서 문화유산과 해당 영역 내 관련 기관에 대한 최신 정보를 수집, 저장, 공표할 수 있도록 웹 기반의 문화적 자원 목록 기획

공동의 템플릿 제작, 그리고 각 주 정부, 지역 및 또는 판차얏의 책임 하에 완성될 웹 기반 공공 데이터베이스 개발에서 분산화된 윤곽을 드러냈다. 이는 능률적인 방식을 통한 목록 작성 과정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유산을 확인·보호·보존·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역 본부의 역량을 강화시켜준다. 이 메커니즘은 동일한 범위 내 목록들 가운데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요구했으며, 각 주·지역·판차얏에서 총체적 방식 — 문화다양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결속 및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을 확인하는 — 을 통해 문화적 자원을 널리 알리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했다.

무형 유산, 유형 유산 및 관련 문화 기관들에 대한 웹 포털 사이트 연결 정보 중심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기획 및 구축을 마무리한 후에는 정보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조직 및 웹 포털 사이트 구조 시험을 위해 선정된 몇몇 주와 함께 시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타당성 측면에서 볼 때, 수평적으로 구성된 주(州) 측면에서의 문화적 자원 지도 제작은 공동체에 기반한 지도 제작과 더불어 수직층을 위한 충분한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인도 전역에 걸쳐 유산 표현의 광대하고 비문서화된 자원들이 산재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포괄성과 제한적으로 표기된 데이터 간 대비에 대한 시도와 관련된 의문점들 또한 대두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접근, 정체성, 신뢰성, 지적재산권(IPR)과 관계된 문제들이었다. 예컨대 무엇이 각 템플릿을 위한 정보의 범주가 되어야 하며, 조정되어야 할 수준은 어떤 것인가? 무형 유산의 영역에서는 예컨대 템플릿이 업무담당자 목록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가? 또한 전통 음악의 영역에서 템플릿이 악기 형식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가? 문화 지도 제작을 위한 현 시도가 철저히 이론적인 조사로 가장하기 보다는 지역 문화에 대한 개관 및 입문으로서 선보이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명심하면서, 어느 수준의 세부 사항을 템플릿이 제공해 주어야 하는가? 개발을 위해 얼마나 많은 템플릿이 필요할까? 예컨대 무형 유산의 영역에서 춤, 음악, 구전 전통 및 표현에 대한 각각의 템플릿이 마련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이들이 내부의 세부 영역들을 포함하는 '연행예술'이라는 하나의 템플릿 하에 그 안의 세부 영역들과 더불어 한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을까? 구전 전통, 음악, 춤의 영역에서 어떠한 분류 시스템('고전', '민속', '대중', '부족' 등)이 활용되어야 하는가? 구축되었거나 널리 활용되고 있는 분류법이 있는가? 공예와 관련해서는 재료별(직물, 자연 섬유, 금속, 나무 등) 또는 기술별(자수, 염색, 목각, 시레 가공 등)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까?

이는 또한 프로젝트를 조사·수집된 정보의 양상과 관련된 조사의 다음 단계로 이끌었으며, 지도 제작 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목록을 위한 몇 가지 잠재적 범위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 프로젝트는 다음의 영역에 제한되어 있다.

- 유형 유산 : 개인 기념물, 집단 기념물, 지역, 경관
- 무형 유산 : 공예, 연행예술(음악, 춤, 연극, 구전 전통 포함)
- 문화 기관 : 박물관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한 템플릿이 마련되었다.

- 유산 지역
- 공연 및 구전 전통
- 공예
- 축제 행사
- 박물관

일단 템플릿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를 보편화하기 전에 실제 현장에서 각 유산 영역에 대해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시범 프로젝트는 뉴델리를 본거지로 하는 기관인 SAHA *Stirring Action on Heritage and the Arts*가 인도 남서부 지역 주인 케랄라 *Kerala*에서 추진했다. 8명으로 구성된 팀이 각각 일곱 가지 표현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으며, 템플릿 초안이 마련되었다.

템플릿 작업을 하는 동안 지도 제작 자체와 관련된 거시적인 물음과 템플릿 구성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물음을 포함해 몇 가지 의문점들이 발생했다. 각 표현물 별로 주어진 세부 사항의 범위는 이와 관련된 문제였다. 각 기재 사항의 조정 수준은 무엇인가? 지도 제작이 이론적인 과제로서 비추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단지 소개하는 수준의 정보를 제공해야만 할까, 아니면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공급해 주어야 할까?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으로 미루어 볼 때, 상당수는 —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 직접적인 정보조차 없는 것들이 많음에도 지나치게 널리 알려져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접근과 관련되어 있다. 많은 유산 보유자들은 다른 쪽에서 개발 사업을 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으

며, 때로는 정보 공유를 꺼리기도 했다. 템플릿과 관련해 범주화의 특수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동안 문제가 되었다. 많은 표현물들은 행사이자 동시에 연행 예술, 구전 전통, 의례와 오락이었으며, 영역 면에서 상당히 중첩되었다. 기재 사항의 변화하는 기준들 또한 퇴고 또는 요약의 측면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 실질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제는 광범위한 사용에 있어 적합하다고 판명된 템플릿의 부수적인 대안과 더불어 현장에서 대단히 효과가 있었다고 밝혀졌다. 무형 문화유산과 관련된 측면에서의 목록 작성, 유산과 연관된 관점에서의 보존 및 유지의 노력으로서 공동체 및 전통 보유자 보호, 제공되는 또는 촉진시키는 자원들을 통해 기록하기 위한 공동 추진, 훈련 및 전송 지원, 이들의 부흥 및 전송을 위한 단계 착수 등에 대한 다급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양한 집단, 기관, 개인이 현재 인도 전역에서 추진 중인 노력의 상당수가 공동체, 크게는 전 세계에 제공해주는 의미, 우선순위, 혜택의 측면에서 촉진 및 재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에게 남겨진 것이 아닌, 이론적 자원의 지원을 조정하고 가공의 사회적 책무에 따라 촉진된 지역적 노력의 협력을 통해 구성되어야 할 할당된 의무이다.

필자는 SAHA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과정 내 업무로서의 또 다른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추하고자 이 행사를 활용하고 싶다. ‘사하페디아(Sabapedia)’라는 이름의 이 개발 사업은 인도 유·무형 유산에 대한 웹 포털 사이트로서 기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하페디아는 특히 인도, 넓게는 남아시아 문화유산 — 인도 주변 지역, 그리고 전 세계 검색 및 활용이 가능한 지역 내에서 이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식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곳 — 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색이 가능한 웹사이트가 되는 것을 지향한다.

사하페디아의 철저한 개방성은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이 잘 알려진 것뿐만 아니라(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덜 알려진, 인도의 문화 보고(寶庫)를 구성하는 형태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에 있어 보탬이 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사하페디아의 이상적인 사용자는 이를 수단이자 인도 유산과 관련해 그들의 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사람이다. 대략적으로 이 포털 사이트는 유산 관련 정보를 창출하는 교수, 연구자, 일반 독자, 연행자들을 위한 공동 포럼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 사이트는 모든 연구·전공별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유로 인도(정확하게는 남아시아)에 대해 알고자 하는 더 많은 일반 독자를 아우르고자 한다.

초기 단계에서 사하페디아는 다음의 범주들에 대한 기재 사항들을 제공해 준다.

1. 인도 문화 및 지식 체계
2. 공연 예술
3. 유산 지역/공간
4. 축제 행사
5. 공예전통
6. 박물관

더 나아가 남아시아 및 오늘날 국경 전역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문화적 형태로 볼 때, 사하페디아는 궁극적으로 인도의 국경 지역을 넘어 남아시아로까지 그 초점을 확대할 것이다. 일례로 음악적 형태로서의 카왈리(Qawwali)(파키스탄·방글라데시의 이슬람 종교 음악-역자 주)는 인도 북쪽 지역과 파키스탄 전역에서 발견된다. 또 다른 예로는 바울(Baul)(벵갈Bengal 지방의 전통 음악-역자 주)이 있는데, 벵갈 서쪽 지역 및 방글라데시 국경 지역에 걸쳐 불리지고 있다.

웹사이트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는 논의 중인 형태들(문학, 박물관, 공예 기술이건 문화적 표현의 또 다른 형태이건 간에)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유용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많은 형태들 — 기본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연구자 또는 환경보호론자, 혹은 유산 관리자들이 추진·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 에 대한 정보의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웹 기반화된 것과 보편적 접근가능성으로 인해 국가 내 원거리의, 또는 불충분하게 표기된 곳들 안에서 상당수의 덜 알려진 형태들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하페디아는 인도·남아시아 문화유산 관련 정보를 산출하는 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보가 확산되고, 우리는 이를 유산 보존의 중요한 단계로 간주하게 될 것이다. 내용은 기재된 사항을 적고, 철저히 자발적으로 웹페이지를 편집하는 온라인 공동체들에 의해 창출될 것이다. 자원자들은 세계 어떤 곳에서든지 본거지를 두면서, 인도 문화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된 일정 수준의 정보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내용은 공동 제작, 즉 개별 기재 사항에 대한 편집이 정보의 파편 내 균형성·유익성·중요성과 비례한다는 개념에 기인해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해 편집될 것이다. 내용은 참조문을 비롯해 추가적으로

읽기 위한 목록과 관련해 검증이 가능할 것이다. 사하페디아는 원 정보 또는 연구를 요구하는 대신 균형 잡힌 기재 사항을 창출해냈던 기존의 자원들을 고양할 것이다. 내용 창출은 백과사전 정보가 자유롭게 제공될 수 있으며, 이에 관심이 있는 전 세계 자원자들로부터 나온다는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하이퍼텍스트 *hypertext*(특정한 단어가 다른 단어나 또는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 사용자가 관련 문서를 넘나들며 검색이 가능한 텍스트 - 역자 주) 즉, 외부 링크를 비롯해 다른 참고사항 또는 지식과 관련된 정보는 웹사이트 내 어디서든지 되도록 많이 제공될 것이다. 사이트를 보다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것(사용자들이 그들이 가장 관심 갖는 정보의 경로들을 직접 따라가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능률적으로 만드는 것(사이트가 내용의 반복을 방지하고 기재 사항들끼리 연결시키면서 대다수 사용자들을 위한 윈스톱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도 중요하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인도의 지식 체계와 문화 관련 사업에 상당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놀랍게도 웹상에서 인도의 유산 및 지식 체계와 관련해 믿을 만하고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싱글 윈도 *single-window* 백과사전식의 참고용 사이트가 부재한 실정이다. 오늘날 세계가 인도를 문화의 보고寶庫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총괄적인 인터넷 검색가능 지식 포털 사이트를 제작하는 과제에 부응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